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로보셔틀부터 원격 자율주차까지... 미래차 개발 가속페달

쫄라티 기반 자율주행 차량 4대
연구소 내부 순환 로보셔틀 투입

자율주행 차 관제 시스템 도입
운행경로 설정 등 실시간 확인
차량 스스로 주차공간 선별도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현대차가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 및 자율주차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소 내 수요응답형 로보셔틀 운영 ▲자율주행 차량 관제 시스템 개발 ▲원격 자율주차 기술 개발을 위한 자율주차타워 건설 등 세가지로 나뉜다.

현대차는 이를 통해 미래기술 개발과 실증을 동시에 추진하고,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남양연구소 내부에서 시범 운영중인 로보셔틀의 모습

먼저 현대차는 이달 7일부터 연구소 내부를 순환하는 로보셔틀 4대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범 서비스에 투입한 차량은 현대차 자율주행사업부에서 자체 개발한 쫄라티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으로 지난 8~9월 세종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 로보셔틀과 동일한 모델이다.

이 차량은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적용해 차량 스스로 주행 상

황을 인지·판단 후 차량을 제어할 수 있고, 일부 제한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상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다. 또 로보셔틀에 AI 기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인 셔클을 접목해 차량의 이동시간을 줄여주고 배차 효율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수요에 맞춰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자체 개발한 웹 기반 자율주행 차량 관제 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자율주행 서비스에 투입한 차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도로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 정상적인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된다. 관제사가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해 차량의 운행 경로를 새롭게 설정하는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의 일환으로 남양연구소 내부에 주차타워를 건설해 원격 자율주차 기술 개발에 힘을 싣는다. 원격 자율주차타워는 약 600대 이상 주차 가능한 8층 높이 건물로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자율주차타워는 원격 자율주차(Remote Parking Pilot, RPP) 등 다양한 신기술 개발에 적합하도록 맞춤 설계됐다. 원격 자율주차란 주차장 입구에서 운전자가 하차하면 이후 차량이 빈공간을 탐색해 주차하고, 운전자가 복귀했

을 때 차량을 주차장 입구로 다시 이동시켜 운전자가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대차는 자율주차타워에서 차량이 목표 주차공간을 스스로 선별하고, 최적의 이동 경로를 생성해 자율주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환경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 주차공간 역시 직선·곡선 램프 등 각각 다른 형태로 구성했으며, 각 층별로 바닥재질을 아스팔트, 에폭시, 콘크리트 등으로 차별화해 여러가지 환경에서 자율주차 관련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장웅준 현대차 자율주행사업부 상무는 "남양연구소 내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인지·판단·제어 기술을 더욱 고도화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안전한 로보셔틀·로보택시·로보배송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5G 만난 백제유산... LGU+, 미디어아트 공개

부여 정림사지 문화재 전시·공연
문화재 야행서 실감형 서비스 선보

LG유플러스가 백제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5G 미디어아트를 공개한다.

LG유플러스는 12일 부여 정림사지에서 개최되는 문화재 야행(夜行) '사비, 빛의 화원'에서 5G 28㎐ 기반 실감형 서비스 선보인다고 밝혔다.

'사비, 빛의 화원'은 내달 13일까지 충남 부여군 정림사지에서 열리는 문화재 전시·공연·체험 행사다. 부여군·문화재청·충청남도 주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관 하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백제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LG유플러스는 유선 네트워크 설치가 쉽지 않은 유적지에 5G 28㎐ 무선 기술을 도입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문화재 주변 공사나 작업 없이도 관람객들에게 Wi-Fi존을 제공하고, 유적지 내에서 대용량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여를 소개하는 고화질 콘



정림사지에 5G 28㎐ 미디어아트가 구현된 모습.

/LG유플러스

텐츠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 제작해 지역 활성화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12일 오후 개막식에 맞춰 선보이는 5G 28㎐ 기반의 미디어아트와 야외조명 기술이다. 문화재 야행이 열리는 한달간 프로젝트 맵핑, 레이저, 대형 LED, 메쉬스크린, 광섬유, 아크릴 조형 등을 통해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백제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관람객에게 다채롭게 전할 예정이다.

오는 16일, 17일 양일간은 정림사지

한편에 5G 28㎐ 체험 부스를 꾸려 세계 최초 5G AR클래스인 'U+리얼클래스'로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감상도 돕는다. 관람객들은 증강현실(AR)을 통해 정림사지 5층 석탑 옆에서 펼쳐지는 아이돌 공연을 감상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MZ세대들을 위한 5G 28㎐ 기반의 콘텐츠 체험 공간도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현장에 비치된 20여대의 5G 28㎐ 체험용 스마트폰 통해 'U+아이돌Live'에서 서비스하는 인기 아이돌그룹의 부여 투어 콘텐츠를 볼 수 있다.

/강준혁 기자 junhyuk@

착용형 로봇 '위로보틱스', 퓨처플레이 시드투자 유치

착용형 작업보조로봇 스타트업 '위로보틱스'가 투자를 유치하며 기술 발전에 속도를 낸다.

위로보틱스는 12일 퓨처플레이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위로보틱스는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혁신적인 목표를 가진 로보틱스 스타트업이다. 고성능 안전로봇의 설계 및 제어기술과 착용형 로봇기술을 바탕으로 임기편하고 유연하면서도 큰 힘을 보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착용형 작업보조로봇



(왼쪽부터) 위로보틱스 김용재 대표, 최병준 COO, 노창현 CTO, 이연백 대표. /위로보틱스

을 개발한다.

가벼움과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위로보틱스의 로봇은 착용한 상태에서 운전은 물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앉거나 눕는 등의 휴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로봇과 연계된 '스마트 작업 제어 서비스'는 로봇으로부터 입수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작업 유형, 동작 강도, 작업 편중을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근골격 건강 관리 및 작업 환경 개선안까지 제안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

/강준혁 기자

네이버웍스, 日 협업툴시장 5년 연속 1위

매출 점유율 3%p 증가한 33.6%
유료가입 연내 50%까지 증가 전망

네이버클라우드가 글로벌 협업툴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자사 업무용 협업 도구 '네이버웍스'가 일본 비즈니스 채팅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로 안정적 1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강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장조사 전문업체 후지키메라종합연구소가 최근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라인웍스(네이버웍스의 일본 명칭)는 일본 비즈니스 채팅 시장에서 매출 및 사용자(ID) 기준 모두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매출 점유율은 전년대비 3%p 증가한 33.6%로, 2위 업체와의 매출 격차는 4% 수준으로 더 벌어졌다.

네이버웍스는 일본의 국민메신저인 '라인'과 유사해 사용이 쉽고 라인과의 호환성으로 일본 비즈니스 채팅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수성해왔다. 특히 작년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근무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기업의

이용 확대와 기존 고객기업의 전사적 도입 확장 등으로 이용 ID수가 확대되며 매출을 견인했다. 연구소 측은 네이버웍스가 유료 ID수가 연내 약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 IT 전문 매거진 닛케이 컴퓨터가 지난달 발표한 '고객 만족도 조사 2021-2022'에 따르면, 네이버웍스는 일본 그룹웨어/비즈니스 채팅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영업 직군이 많은 금융업종에서 라인을 사용하는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내근·외근직 간의 빠른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해 네이버웍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최대 규모의 손해보험회사이자 업계 1위인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외근 업무시간의 증가로 인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네이버웍스를 선택했다.

일본 치바현의 '치바대학 의학부 부속병원'은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응급 상황을 현장에서 담당 관계자들에게 빠르게 공유하고 대처하기 위해 네이버웍스를 도입했다.

/강준혁 기자

태광그룹, 계열사 사업장 안전환경 강화

태광산업·화석, 세이프티 워크 진행

태광그룹 섬유·석유화학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석이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안전환경 강화에 나선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석은 10월 첫째주 '태광세이프티 워크'로 지정하고 울산공장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안전

환경 강화활동을 뜻하는 'Safety 365'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3'은 사고 우려가 큰 3분야에 대한 개선활동, '6'은 작업장에서 필수적인 6대 안전보호구 착용 활동, '5'는 지난 5일 동안 진행된 태광세이프티 워크를 의미한다.

박재용 대표는 "안전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회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